

# PART 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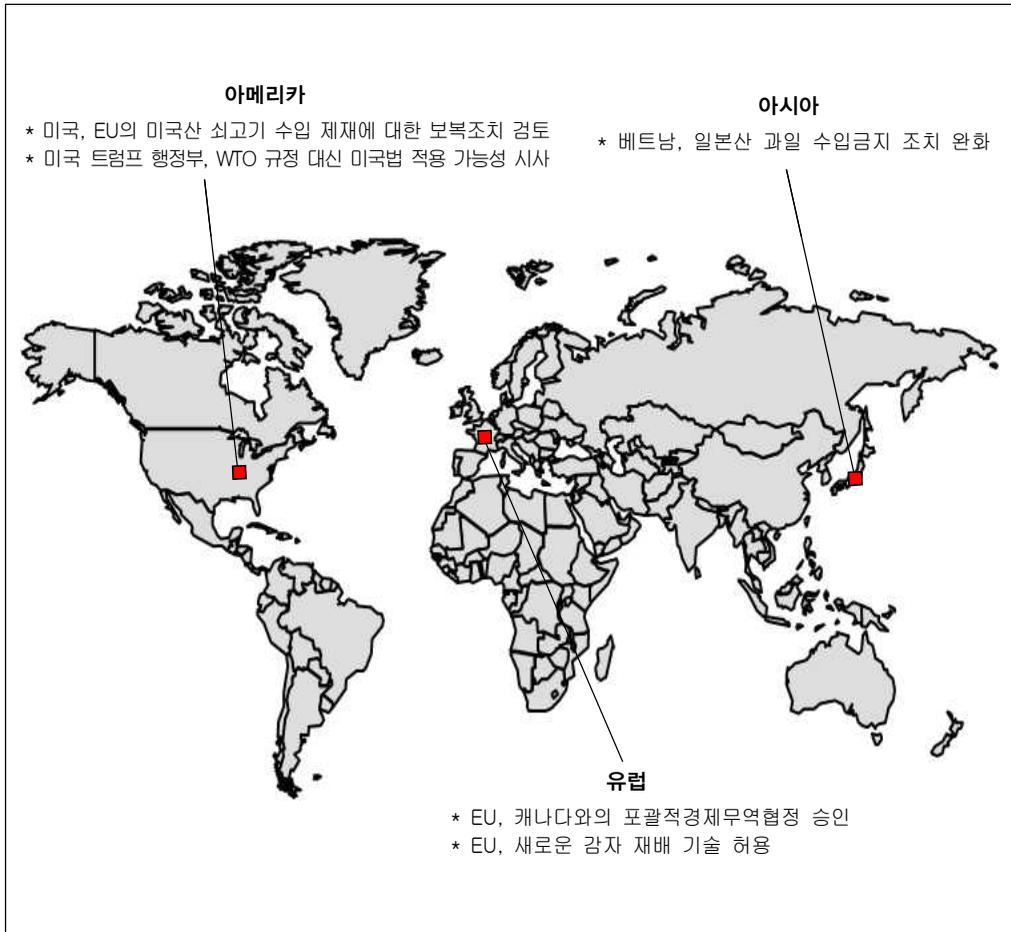


## 국제 농업 정보

1. 미국, EU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제재에 대한 보복조치 검토
2. 미국 트럼프 행정부, WTO 규정 대신 미국법 적용 가능성 시사
  3. EU, 캐나다와의 포괄적경제무역협정 승인
    4. EU, 새로운 감자 재배 기술 허용
  5. 베트남, 일본산 과일 수입금지 조치 완화



## 국제 농업 정보 (2017. 3.)



## 미국, EU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제재에 대한 보복조치 검토

- 미국 무역대표부(USTR, US Trade Representative)는 쇠고기 및 송아지, 유제품부문에 서 EU의 호르몬 처리 쇠고기 금지조치와 관련하여 EU산 수입품에 대해 보복관세를 부과할 것을 촉구함.
- 이에 미국 무역대표부는 2017년 2월 15~16일, 육류산업에서 제기한 청원서 검토를 위해 워싱턴에서 청문회를 개최함.
  - EU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부과는 EU 농식품 무역에 큰 혼란을 가져올 수 있으며, 잠재적으로 세계 무역에 큰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음.
- 2015년 무역촉진법(The Trade Facilitation and Trade Enforcement Act of 2015)은 세계 무역기구(WTO)의 승인을 받아 미국무역대표부가 이전에 종결된 타국에 대한 제재 및 무역 양허 정지를 재개할 수 있도록 허락함.
  - 또한 2015년 무역촉진법은 청원서가 제기되면 미국무역대표부가 이를 협의 및 검토하도록 요구하고 있음.
- 2016년 12월 9일, 미국 쇠고기산업계는 EU의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불공정한 제재와 관련하여 보복조치를 취해달라는 청원서를 서면으로 제출함.
  - 2017년 1월 초, 해당 청원서에 대한 응답으로 미국무역대표부는 쇠고기, 돼지고기, 가금류, 치즈 등을 포함하여 EU의 농식품에 대해 다시 관세를 부과할 것을 고려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음.

### □ 부문 시연

- 미국육류수출협회(USMEF, US Meat Export Federation)는 새로운 제재를 지지하는 입장을 표명함.
  - 미국육류수출협회는 청문회가 개최되기 전, 문서에서 미국 쇠고기산업이 EU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제재에 대해 조치를 취한다는 미국육류수출협회의 결정을 완전히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힘.

- 미국육류수출협회는 미국 육류제품의 약 90%를 생산하는 전미축우협회(NCBA, National Cattlemen's Beef Association)와 북미육류협회(North American Meat Institute, NAMI)를 포함한 다수의 쇠고기 수출업체들을 대표함.
- 1980년대 말부터 EU는 에스트라디올 17-b(estradiol 17-b), 테스토스테론(testosterone), 프로게스테론(progesterone), 제라놀(zeranol), TBA(trebolone acetate), MGA(melengestrol acetate) 6가지의 호르몬 중 어느 것이든 성장촉진 목적으로 투여된 동물로부터 생산되는 쇠고기나 쇠고기 가공식품의 수입을 금지하여 왔음.
  - 미국 무역대표부는 EU의 수입금지 조치는 특수하게 생산된 미국 쇠고기와 쇠고기 가공식품이 아닌 모든 수입을 금지하는 것이라고 언급함.
- 미국은 EU의 수입금지 조치의 근거가 되는 과학적 자료를 반박하며, 농민단체들은 수입금지 조치로 인해 미국 쇠고기부문이 EU시장에서 자사 제품의 존재를 유지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주장함.
  - 미국육류수출협회는 EU의 관세 및 비관세 조치의 결합으로 인해 EU로의 미국산 쇠고기 수출이 호르몬 금지 이전의 수준으로 회복한 적이 없었으며, 반면 그 외 타국으로의 쇠고기 수출은 동기간 동안 두 배 이상 증가하였다고 언급함.
  - 또한 유엔 국제식품규격위원회(United Nations' Codex Alimentarius Commission)에서 호르몬의 안정성을 확인하였고, 전 세계 여러 국가들이 그것의 사용을 승인하였으며, 해당 국가들의 소비자들은 미국이 생산하는 안전하고 맛있는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다고 언급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EU는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제재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으며, EU시장에서 미국 제품의 기회를 창출하기 위해 EU집행위원회와의 양자 협상을 통한 미국 정부의 노력을 좌절시킴.

## □ 고품질의 쇠고기 수입 알당

- 2009년 5월, 미국과 EU는 성장촉진호르몬을 투여하지 않은 '고품질'의 쇠고기 제품에 대한 관세율 쿼터(TRQ, tariff-rate quota)를 채택함으로써 시장 접근성을 점점 높이고, 미국은 WTO의 승인과 함께 미국이 부과한 추가 관세들을 줄여나가겠다는 내용의 MOU를 체결함.
  - 2011년 5월, 미국무역대표부는 EU제품에 대한 모든 추가 관세들을 종결시킴.

- 2012년 8월 시작한 MOU의 두 번째 단계에서 EU는 캐나다와 합의한 추가 4,200톤을 포함하여 관세율 쿼터(TRQ)를 4만 8,200톤으로 높임.
- EU가 고품질 쇠고기 제품에 이러한 관세율 쿼터를 유지하고 있지만 미국무역대표부는 호르몬 금지로 인해 야기된 미국 쇠고기부문의 경제적 피해를 보상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함.
- 초기에는 미국 공급업체를 위한 할당량이 있었지만 이는 차차 캐나다, 호주, 우루과이, 아르헨티나, 뉴질랜드에까지 부여되어 해당 국가들과 미국은 1만 2,050톤의 분기별 할당량을 채우기 위해 경쟁하고 있음.
- 미국 육류단체(US meat groups)는 시장의 발달이 2009년 MOU에 대한 우리의 지지를 약화시킨 것이 불행한 사실이며, 우리는 새로운 할당량이 장기적 관점에서 EU로의 수출을 구축하는 기회를 창출할 것이라는 기대로 EU로부터의 수입에 대한 보복관세 제거에 동의하였다고 언급함.
  - 그러나 MOU의 당사국이 아닌 국가들에 의해 미국 쇠고기의 할당량이 밀려남.
  - 미국 쇠고기산업의 경우 이를 견딜 수 없으며, 미국 산업을 보완하기 위해 만들어진 할당량을 우리의 경쟁 국가들이 점점 더 많이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에 동의할 수 없다고 언급함.
- 미국육류수출협회는 미국 정부가 성공하지는 못했지만 지난 몇 년 동안 유럽 집행위원회와 이 상황을 바로 잡기 위한 방법에 대해 토론하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덧붙여 언급함.
  - 미국육류수출협회는 이러한 노력을 지지하였지만 만족할 만한 결과를 향한 어떠한 진전도 없이 몇 개월이 지나면서 점점 더 커져가는 좌절감을 지켜보았다고 언급함.
  - 또한 유감스럽게도 이러한 대화에는 진전이 없으며, EU의 무역 제재 조치로 인해 수년 간 우리가 겪은 손실을 위한 공정한 보상을 받기 위한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고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고 언급함.

### □ 유제품 관련

- 미국 국립우유생산자연협회(NMPE, US National Milk Producers Federation) 또한 관세의 재적용을 원하며, 특정 치즈를 포함한 제품목록을 요구함.

- 이들은 EU로의 미국 낙농제품 수출이 무수히 많은 제약으로 인해 제한되어 있으며, EU의 보호된 지리적표시가 수년 간 전 세계에서 널리 포괄적으로 사용되는 이름을 가진 제품의 EU시장 진입을 방해하거나 차단한다고 주장함.
- 추가 유제품을 목록에 포함하는 것은 EU관료들이 EU정책에 따라 우리가 운영해야만 하는 세계를 이해하도록 도울 것이라고 언급함.
  - 또한 게다가 목록에 유제품을 추가하는 것은 EU가 자신의 의무를 다할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EU생산자들과 정치인들의 주의를 끌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함.
- 미국 국립우유생산자연합회는 보복관세를 목표로 추천하는 여러 개의 '1차(first tier)' 및 '2차(second tier)' 제품을 제안함.
  - 1차 추천 품목: 부드럽게 숙성되지 않은 젓소의 우유를 함유하고 있는 치즈의 쿼터내물량 및 외물량(in-quota and out-of-quota)(HS Codes 04060995 and 040699), 젓소의 우유로 만들어진 로마노(romano), 레지아노(reggiano), 파마산(parmesan), 프로볼로네(provolone), 프로볼레티(provoletti) 치즈의 쿼터내물량 및 외물량 (04069041 and 04069042)
  - 2차 추천 품목: 양의 우유 치즈 원래의 덩어리로 강판으로 갈기에 적합함(TRQ 적용 대상 아님) (04069056), 젓소의 우유를 함유하지 않은 치즈나 부드럽게 숙성시킨 젓소의 우유 치즈(TRQ 적용 대상 아님) (4069099), 양의 우유 치즈 원래 덩어리로 만든 페코리노 치즈로 강판으로 갈기에 적합하지 않음(TRQ 적용 대상 아님) (04069057)
- 미국 국립우유생산자연합회는 EU 낙농업부문의 경제적 생존 가능성과 2014년에 러시아의 EU 농식품 수입금지 조치로 인해 EU의 미국 수출시장에의 의존도 증가 측면에서 치즈의 중요성을 강조함.
  - 미국은 EU치즈(040690)의 주요 수출시장으로 글로벌 무역트래커(Global Trade Tracker)의 최근 무역통계에 따르면 2016년 총매출액은 7억 4만 8,322유로로 2015년도의 7억 9만 1,057유로보다 하락하였으며, 러시아의 금지조치가 있기 전 2014년도에는 연간 6억 7,700만 유로보다 높음.
- 미국 국립우유생산자연합회는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이 보복관세로부터 고통받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EU회원국임을 확인함.
  - 미국송아지협회(AVA, American Veal Association) 회장 Dale Bakke는 유럽 송아지

는 관세를 증가해야할 제품 목록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미국무역대표부가 별도의 의견을 강력하게 믿는다고 언급함.

- 그렇게 함으로써 EU가 호르몬 분쟁을 해결하도록 압력을 가할 것이며, 미국 시장을 유럽 송아지 제품으로 다시 열고자 하는 USDA의 최근 결정을 계기로 미국 송아지 생산자들에게 공평한 경쟁의 장을 형성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함.
- 미국이 프랑스 쇠고기 수입금지 조치를 해제한 지 겨우 2주 후에 프랑스의 송아지 생산자 Sobeval이 최근 USDA가 승인한 해외식품 공급업체 목록에 포함되었음.

## □ 식품기업

- 한편, 많은 식품기업들과 세계적인 식료품기업인 World Finer Foods는 귀리, 초콜릿, 잼과 같은 제품에 대한 수입관세가 기업과 근로자들에게 심각한 해를 끼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음.
  - Euro-American Brands는 관세 부과가 근로자들을 해고하도록 한다고 언급하였으며, 미국 의회의 10명의 사람들은 Nestlé Waters North America를 대신하여 수입 광물, 탄산수, 초콜릿에의 관세가 이 회사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언급함.
  - 미국무역대표부에서 고안한 100% 증가관세(ad valorem duties)가 Nestle사의 물과 초콜릿 제품의 매출을 크게 감소시킬 것이며, 이 제품들의 슈퍼마켓과 식당으로의 배포를 방해한다고 주장함.
- 미국은 EU농식품의 주요 수출시장으로, EU집행위원회의 데이터에 따르면 2015년 12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12개월 동안 총매출액은 1,307억 1,700유로임.
  - 반면, EU는 1,118억 4,000유로 상당의 농식품을 수입하였으며, 해당부문에서 유럽연합에 상당한 무역 이익을 제공하고 있음.

## □ Agra Europe의 의견

- Agra Europe의 편집장 Chris Horseman은 2009년도에 해결될 것으로 여겨졌던 1980년대부터 시작된 무역 분쟁을 재개하려는 미국의 강한 의지가 전 세계에 충격을 전할 것이라고 언급함.
  - EU는 성장촉진제를 투입한 가축 제품 전면 금지에 대해 재개된 국제적인 정밀

---

조사를 환영하지 않을 것임.

- 해당 제품들에 대한 과학적 증거가 아직 부족하지만 EU는 이에 대해 정치적으로 깊게 저항하고 있으며, 시민단체들에게 최근 승인된 EU-캐나다 무역협정이 호르몬 처리된 쇠고기의 유럽으로의 부정 도입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을 설득하기 위해 노력 중임.
- EU와 미국 간 2009년 평화협정의 폐지는 미국의 제재가 다시 재개될 가능성이 높은 EU 농식품부문에 잠재적으로 큰 피해를 줄 것임.
- 또한 호르몬이 없는 쇠고기에 대한 보상적 4만 5,000톤의 TRQ이와 관련한 이익이 현재 주로 미국으로 흘러가고 있음)와 관련해서 EU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질문을 제기할 것임.
- 영국 소비자들 사이의 안티 호르몬(anti-hormone)에 대한 감정이 유럽 전역에서의 목소리와 같은 상황 속에서 호르몬과 관련하여 재개된 무역전쟁은 또한 미국과 브렉시트 이후의 신속한 무역협정의 타결을 원하는 영국에게 해를 끼칠 것임.

※ 자료: Agra Europe Weekly(2017,02,24.)

## 미국 트럼프 행정부, WTO 규정 대신 미국법 적용 가능성 시사

-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3월 1일, 트럼프 정권의 통상정책 방침을 담은 연례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함.
  - 이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세계 무역의 기본질서인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얽매이지 않고 자국의 주권을 지키겠다는 미국 우선주의 입장을 표명함.
  - 또한 농산물부문의 수출확대 목표를 위해 다자간협상 보다는 양자간 협상을 중점으로 일본을 포함한 TPP참여국과의 협상을 진행할 방침임을 밝힘.
-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주권을 지키기 위해 타국과의 무역분쟁을 둘러싼 WTO의 분쟁해결 절차 및 결정이 자국에 불이익을 주는 경우에는 그 결정에 따르지 않을 방침을 표명함.
  - 미국의 국내법에 기초하여 상대국에 높은 관세를 적용할 수 있는 통상법 301조의 적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짐.
  - 통상법 301조는 미국과 교역하는 국가가 불공정한 무역행위를 할 경우, 미국이 보복조치를 취할 수 있는 통상법 조항임.
  - 미국이 WTO의 규정을 따르지 않고 무시한다면, 각국으로 보복조치가 확대되는 등 세계 무역질서에 혼란이 가중될 수 있음.
- 또한 통상정책의 목적은 국내 제조업의 진흥과 농업, 서비스산업의 수출 확대 등을 내세워 이들의 실현하기 위해 “다자간 협상에서 양자 간 협상으로 초점을 맞추는 것이 최선”이라고 강조함.
  - 이에 농산품을 포함한 수출에 대한 무역장벽 철폐에 주력할 방침이라고 함.
- TPP 탈퇴와 관련하여 미국은 TPP참여국과의 양자협상을 통해 대안을 찾을 것이라고 언급함.
  - TPP는 미국산 제품이나 농산물에 충분한 시장개방을 하고 있지 않다며 불만을 표시하며 양자간 협상을 통해 높은 수준의 시장개방을 요구할 뜻을 강조함.
  - 2015년 의견서에는 TPP협상이 진전을 보이면서 농업부문에 대한 특별한 언

---

급은 없었으나, 미국이 TPP협상에서 탈퇴한 만큼 4월 재개되는 미국과 일본의 양자회담에서는 농산물 관세 인하 등 시장 개방을 요구할 것으로 보임.

※자료: 일본농업신문([www.agrnews.co.jp](http://www.agrnews.co.jp)) (2017.03.03.)

## EU, 캐나다와의 포괄적경제무역협정 승인

### □ EU-캐나다 포괄적경제무역협정 발효 예정

- 유럽의회에서 EU-캐나다 포괄적경제무역협정(CETA, Comprehensive Economic and Trade Agreement)비준동의안이 찬성 408표, 반대 254표로 가결되어 발효될 전망이다.
- 예상대로 2월 15일에 승인된 협정에 대한 유럽의회원들(MEPs)과 산업 및 시민단체 사이에 다양한 반응이 있었으며, 이 협정이 완전히 발효되기까지는 회원국의 국가 및 지역의회의들의 비준이 여전히 필요한 상태임.
  - 동 협정은 이르면 4월 초 발효될 예정임.
  - 많은 유럽의회의원들은 브렉시트와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의 당선이 가져온 불확실한 국제 환경 속에서 이러한 움직임은 더욱 필요하다며 지지를 표명함.
- 유럽 인민당(EPP, European People's Party)의 유럽의회의원인 Manfred Weber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음.
  - EU-캐나다간 포괄적 경제무역협정은 도널드 트럼프 정책에 대항하는 유럽과 캐나다의 대안임.
  - 유럽에서는 가교를 놓는 것이 벽을 쌓는 것보다 더욱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며, 우리는 보호주의 대신 파트너십을 원함.
  - 세계무역에서 EU는 높은 수준의 표준(standards)과 규범(norms)을 제시하며 국제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하길 원함.
  - 이에 EU-캐나다간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은 공정한 무역협정이며 미래 지향적인 가치 및 표준 기반의 모델임.
- 사회민주동맹(S&D, Socialist & Democrat) 무역부문의 대변인인 유럽의회의원 Elena Valenciano는 다음과 같이 언급함.
  - 보호무역주의자인 미국 대통령이 우리의 다자간 세계 교역 질서와 러시아와 중국의 영토 침해에 대해 공개적으로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럽인으로서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단합하여 우리의 동맹국들과의 유대를 강화해야 함.

- 오늘날 세계에서, 캐나다를 제외하고 유럽이 많은 가치(values)와 관심사(interests)를 공유하는 국가는 아마 없을 것임.
- 유럽보수개혁그룹(ECR, European Conservative and Reformist group) 또한 해당 투표를 환영하였음.
  - 유럽의회의원 David Campbell Bannerman은 마침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이 통과되었음을 기쁘게 생각하며, 이는 우리 모두에게 아주 좋은 소식이라고 언급함.
  - 그러나 EU는 주요 무역 상대국들과 영국과 함께 미래에 진지한 무역협정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협정 체결에 소요되는 시간을 반영해야 한다고 함.
  - 2009년도의 회담 이후 EU와 캐나다는 EU의 치즈와 캐나다의 육류에 대한 시장 접근성 향상을 포함한 타협안과 함께 2013년 10월에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을 체결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여러 걸림돌이 발생하였음.
  - 이 협정은 또한 자유당그룹(ALDE, Alliance of Liberals and Democrats)의 지지를 받았지만 유럽통합좌파 및 북부 녹색좌파 연합그룹(Greens and European United Left-Nordic Green Left)의 지지를 받지 못함.

## □ 농업인, 산업계 및 NGO단체의 반응

- 유럽공동농업정책의 로비단체인 Copa-Cogeca(유럽농업조직위원회/유럽농업협동조합위원회)의 사무국장은 모방으로부터 우리 제품의 품질을 보호해주는 협정에서 EU 생산 및 지리적 표시(GIs, Geographical Indications)와 안전 기준(소 및 호르몬을 맞지 않은 쇠고기의 완전한 추적 가능성)과 같은 품질 기준이 인정된 사실을 환영하며, 다음과 같이 언급함.
  - 이는 공정한 규정을 기반으로 한 무역을 향한 좋은 단계이며 이제 우리는 EU-일본의 무역협정과 같은 다른 국가와의 무역협상을 기대하고 있음.
  -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이 제대로 시행되고 시장실패를 피할 수 있는 농산물 수입에 대한 관세율 쿼터가 적용된다면 양측에게 모두에게 이로울 것임.
  - 우리는 특히 캐나다로의 EU 유제품과 와인의 더 나은 시장 접근성 환영하지만 캐나다 쇠고기와 돼지고기의 EU로의 시장 접근성 증가에 대해선 계속 경계할 것임.

- 성장 촉진제의 금지는 쇠고기와 무(無)락토파민(ractopamine) 돼지고기 생산에 있어서도 좋음.
- 슬로우 푸드(Slow food) 대표 Carlo Petrini는 국제 자유무역협정이 소규모 생산자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환경 및 사회적 생산 기준을 높이지 못한다면 이 협정은 무의미하다고 주장하며, 다소 부정적인 반응을 보임.
  - 오늘날 유럽에는 지리적 표시가 있는 약 1,300개의 식품과 2,800개의 와인, 330개의 증류주(spirit)가 있으며,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이 이들 중 173개를 보호할 것이라고 주장함.
- 유로커머스(EuroCommerce) 그룹의 사무총장 Christian Verschueren는 더 넓은 산업을 고려해보면 이 결과는 유럽에서 꼭 필요한 성장과 일자리 형성에 있어 중요한 공헌이라고 언급함.
  - 특히 정치적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시기에 건강한 국제 무역환경을 보장하는 접근 방식이 필요하며,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은 유럽 기업과 소비자들에게 있어 좋은 협정이라고 함.
- 한편, 많은 환경관련 NGO단체들과 시민 사회 단체들은 협정을 맹비난하며, 교통 및 환경단체(Transport & Environment)는 이를 “사람과 지구환경에 좋지 않은 협정”이라고 언급하였음.
  - 더 나은 무역 및 규정 캠페인 회장 Cécile Toubeau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무역협정에 대해 공무원들은 지지해서는 안 되지만 유럽의회의원들이 제대로 이행될 수 없는 환경에 대한 내용과 기업의 이익을 우선하는 법률체계와 함께 협정에 대해 제대로 살펴보지 않고 승인했다며 지적함.

※ 자료: Agra Europe Weekly(2017.02.17.)

## EU, 새로운 감자 재배기술 허용

- EU회원국들은 EU에서 감자 재배 및 생산 방식 개선을 위한 ‘임시 실험(temporary experiment)’을 승인함.
- 감자는 현재 독점적으로 괴경(tuber)에 의해 번식되고 있지만 혁신적인 기술은 소위 True Potato Seed(TPS) 종자에 의한 번식을 허용함.
  - 현재 EU 법령은 이러한 물질과 관련한 마케팅을 규제하지 않지만 금주에 식물, 동물, 식품, 사료 상임위원회에서 내린 결정에 따라 변경될 예정임.
- 2017년 2월 21일 화요일의 투표에서 EU집행위원회의 종자 및 번식부문이 TPS를 초기 7년 동안 마케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EU집행위원회의 이행 결정을 지지했음.
  - 한 보도에서 EU집행위원회의 보건식품안전총국(DG Sante)은 동 임시 실험이 이 물질에 대한 요구사항을 수립하는 데에 도움을 주어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 이러한 혁신 기술로부터 최대의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함.
- TPS로 감자를 재배하는 것은 부패하기 쉽고, 부피가 크며, 운송비용이 높은 전통적인 종자의 감자 괴경보다 많은 이점을 가짐.
  - 국제감자센터(International Potato Center)의 발표에 따르면 TPS가 괴경전염병(tuber-transmitted diseases)과 관련된 문제를 최소화하고, 저장 및 운송을 보다 쉽게 한다고 함.
  - 현재의 번식 과정은 종의 복잡한 유전학과 감자 괴경의 느린 증식에 의해 방해받고 있으며, 하나의 감자 종자 괴경은 다음 세대에 오직 평균 20개의 괴경을 생산할 수 있음.
  - EU집행위원회의 보건식품안전총국은 혁신 기술이 현재 위 두 가지 문제점들을 극복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언급함.
- 이러한 기술들은 crossing of uniform, 자식계(inbred lines)에 의존하며, 하나 또는 여러 가지 유익한 새로운 특성을 보다 빨리 도입하고 빠른 번식을 위한 True Potato Seed의 사용을 가능하게 함.

- 하나의 감자 식물은 쉽게 1,000개의 종자를 생산할 수 있다고 함.
- EU에서 생산된 감자 종자의 총 가치는 연간 10억 유로로 추정됨.
- EU로부터 타국으로의 감자 종자의 수출은 유럽 감장 종자 기업들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새로운 기술들은 잠재적으로 무역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임.
  - 작은 봉지의 30그램의 True Potato Seed는 종자 껍질의 2,500kg에 상응하며, 장시간의 운송 중에 종자 껍질의 품질이 하락하는 경향이 있음.

※ 자료: Agra Europe Weekly(2017,02,24.)

## 베트남, 일본산 과일 수입금지 조치 완화

- 일본 농림수산성에 따르면 베트남으로 일본산 신선 배를 수출하기 위해서는 주요 요건을 갖추어야 함.
  - 베트남으로 수출되기 전 일본 식물방역소에서 베트남이 침입을 경계하는 병충해에 대한 검역 실시 및 원산지 검사가 이루어져야 함.
  - 또한 일본 식물방역소에 등록된 시설에서 선별 및 포장작업이 이루어져야 하며, 등록된 시설은 저온처리기술, 방제조치기술, 봉지 포장 등의 시설을 갖추어야 함.
- 베트남은 2011년 이후부터 수입되는 식물 유래식품(과일 및 채소 등)에 대해 수입국으로 미리 등록되어 있는 국가 이외 다른 국가에서의 수입은 허가하지 않고 있음.
- 일본은 2013년 12월에 베트남의 수입국으로 등록이 완료되어, 베트남에서 일본산 식물 유래식품 수입은 승인되고 있음.
  - 베트남은 식물유래 식품 수입 시 병해충방지를 위해 적용되는 유해동식물위험도분석(Pest Risk Analysis, PRA)관련 규정을 충족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음.
  - 실질적으로 베트남은 일본산 신선과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나, 신선 배에 대해서는 수입금지조치가 완화되었음. 이와 같은 조치는 일본산 신선과일로는 2015년 9월, 사과에 이어 두 번째임.
- 베트남의 일본산 신선 배 수입 완화조치에 따라 일본의 베트남산 드래곤후르츠(용과)의 수입금지 조치도 완화되었음.
  - 일본은 베트남산 백육종 드래곤후르츠(용과)에 대해 2009년에 수입을 승인하였으나, 적육종 드래곤후르츠(용과)는 과실파리 무리(Tephritidae) 발생이 관찰되어 수입을 금지한 바 있음.
  - 일본은 베트남산의 백육종 드래곤후르츠(용과), Cat Chu종의 망고 등 3품목의 수입을 다시 허가함.
- 일본 농림수산성은 베트남산 적육종 드래곤후르츠에 대해 수입금지조치를 해지하

는 조건으로 식물방역관의 관리·감독 하에서 (1)증열처리시설에서 일정 시간, 일정 온도에서 따라 해독처리 실시, (2)적절한 포장 및 베트남에서 수출 전 검사 실시, (3)전기 해독 및 확실한 검역 실시 등을 요구함.

○ 베트남은 2016년 기준, 1인당 GDP가 2,164달러(IMF 2016) 수준으로 중간소득층이 확대되고 있음.

- 베트남에서는 2016년, 각 지역에서 공장폐수로 인한 물고기 집단 폐사, 불량식품 및 위조 식품 유통 등이 문제되며, 먹거리 안전에 대한 관심과 국민 의식 수준이 높아지고 있음.
- 베트남에서는 일본산 브랜드에 대해 신뢰성이 높은 만큼 이번 수입완화조치로 안전·안심·고품질의 일본산 신선과일 수입이 증가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임.

※ 자료: JETRO([www.jetro.go.jp](http://www.jetro.go.jp)) (2017.02.10.)

자료 작성: 흥예선 연구원